

보도시점 2024. 11. 14.(목) 16:00

배포 2024. 11. 14.(목) 10:00

인공지능(AI)이 그리는 제조업의 미래: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다

-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, '24년 제26차 신성장 4.0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-

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(단장 신상훈, 이하 추진단)은 11.14일(목), (주)LS일렉트릭 청주사업장에서 '24년 제26차 인공지능(AI) 자율제조 분야 신성장 4.0 민관협의체 간담회'를 개최하였다.

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(AI: AI Transformation) 확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, 제조분야 인공지능(AI)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이날 추진단은 '21년 세계경제포럼(WEF) 등대공장*에 선정된 바 있는 LS일렉트릭 청주사업장을 방문하여 다품종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용 사물인터넷(IIoT) 기반의 자동 설비모델변경시스템,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제조 관리지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, 딥러닝을 통한 외관검사, 자율주행 물류로봇 등 제조업 분야 인공지능(AI)기술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완전한 AI 자율제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. LS일렉트릭은 이러한 전환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생산성 60% 향상, 에너지 소비량 60% 절감, 고객클레임 97% 감소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.

* 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(AI), 거대자료(Big Data)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도입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공장으로 세계경제포럼(WEF)에서 2018년부터 선정

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(AI) 자율제조 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, 인공지능(AI) 자율제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, 인공지능(AI) 자율제조 실증사례를 통한 확산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이 발제하고, 이어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(AI) 활용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인공지능(AI) 자율제조의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.

신상훈 단장은 “제조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, 인공지능(AI) 자율제조 기술은 제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,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(AI) 제조 분야에서도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, 특히 대·중견·중소 기업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디지털전환팀	책임자	팀 장	장혜정 (044-215-8880)
		담당자	사무관	도화선 (dohs@korea.kr)

